

SSG 버티기·추락 중대 갈림길

프로야구 전망대... 선두 랜더스 선발진 새 구축 공동 2위 LG·삼성 추격 속 하위권 반등 여부 주목

프로야구 선두 SSG 랜더스가 중반에 접어든 레이스에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아티 르위키, 박종훈, 문승원 등 선발 투수 3명을 잃은 채 새로운 선발 투수진으로 kt wiz, 키움 히어로즈와 홈 6연전을 준비한다.

SSG가 시즌 전 1선발로 낙점한 르위키는 가슴 근육 부상으로 4경기에서 고작 1승만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새로 영입한 오른손 투수 샌가발리오는 팬들 앞에 서려면 입국 후 2주간 격리와 훈련을 포함해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잠수함 투수 박종훈은 오른쪽 팔꿈치를 수술하고 시즌을 접기로 했다. 문승원도 팔꿈치를 검진하려고 미국으로 갔다.

월터 폰트만이 선발진에 남은 상황에서 가발리오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게 SSG의 지상과제다.

김원형 SSG 감독은 조영우, 이건욱, 김정빈 등을 대체 선발 후보로 거명하고 불펜을 강화하겠다고 비상 전략을 공개했다.

마운드가 순식간에 약해진 만큼

베테랑 타선이 이를 얼마만큼 상쇄하느냐도 중요해졌다.

홈런 25개를 합작한 제이미 로맥(13개), 최정(12개) 쌍포가 SSG 장타력을 지탱한다. 파괴력 상승을 위해 해선 최주환, 추신수, 한유섬의 추가 홈런이 필요하다.

SSG를 1경기 차로 쫓는 공동 2위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도 이번 주 홈 6연전을 발판 삼아 1위 재탈환을 노린다.

나란히 7승을 거둬 다승 공동 1위를 달리는 앤드루 수아레즈(LG), 원태인(삼성)은 안방에서 각각 출격을 대기한다.

왼쪽 어깨의 힘줄이 끊어져 7개월간 재활을 거친 차우찬이 6일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한 시즌 첫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내 LG는 선발진 운용에서 안정을 찾았다.

삼성도 키움과의 지난 주말 3연전에서 선발진의 두 기동인 원태인과 데이비드 뷰캐넌이 승리를 보태 기분 좋게 대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SSG와의 격차가 2경기에 불과한 공동 4위 NC 다이노스·두산 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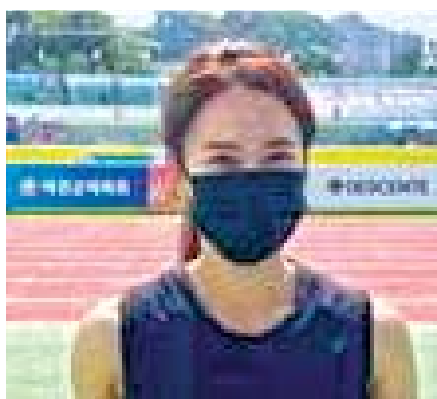
스·kt와 세 팀을 2.5경기 차로 추격하는 키움까지 상위 7개 팀이 벌이는 순위 싸움은 초여름 더위 시작과 함께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감독이 이끄는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 하위권 세 팀의 반등 여부도 시선을 끈다. 한화와 롯데는 6일 각각 NC, kt를 제물로 거짓말 같은 대역전승을 거둬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방망이로 상대 팀 필승 계투조를 무너뜨리고 후반에 뒤집은 게 큰소적이다.

이와 달리 KIA는 에런 브룩스, 대니얼 멩덴 두 외국인 투수가 팔 부상으로 동시에 이탈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타격도 신통치 않아 최하위 추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연합뉴스

▶KBO리그 순위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1	SSG	29	0	21	0.580
2	LG	29	0	23	0.558
2	삼성	29	0	23	0.558
4	NC	27	1	23	0.540
4	두산	27	0	23	0.540
4	KT	27	0	23	0.540
7	키움	26	0	27	0.491
8	KIA	21	0	29	0.420
9	한화	20	0	31	0.392
10	롯데	19	1	31	0.380



서귀포시청 황미영



서귀포시청 이수정



제주시청 남수환

서귀포시청 황미영·이수정 ‘금’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제주시청 남수환 값진 ‘동’

제주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인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이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육상연맹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서귀포시청 여일부 세단뛰기에 참가한 황미영과 포환던지기 이수정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황미영은 대회 3일째 세단뛰기에 참가해 12m57을 뛰어 본인 시즌 베스트 기록을 달성했다. 부상 이후 회복세만큼 기록도 향상되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되고 있다.

이수정은 대회 4일째 포환던지기에서 16m62를 던져 올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올해 목표 기록인 17m에 다가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첫 출전한 제주시청 육상팀은 대회 4일째 남일부 세단뛰기에 참가한 남수환이 값진 동메달을 추가하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받아라 핵펀치”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50전 50승 전승을 거두고 무려 5채금을 석권한 세계 복싱계의 전설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오른쪽·미국·44)가 유명 유튜버 로건 폴(왼쪽·미국·26)을 상대로 시범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번 시범 경기는 프로 전적이 남지 않는 3분 8라운드로 진행됐으며 무승부로 끝났다. 연합뉴스

류현진 악재 딛고 반등할까

11일 화이트삭스전 6승 도전 좌완 상대 타율 1·2위 포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지난 경기 부진을 씻고 재출격한다.

토론토 구단은 7일(한국시간) 류현진을 11일 오전 9시 10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런티드 레이트필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원정경기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류현진의 최근 페이스는 그리 좋지 않다. 5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홈 경기에서 5%이닝 동안 만루홈런 등 홈런 2개를 포함해 안타 7개를 얻어맞고 7실점(6자책점)으로 무너졌다.

토론토 이적 후 최대 실점 기록이다. 아울러 올 시즌 최다인 볼넷 3개를 내줬다.

류현진은 해당 경기에서 제구력 난조에 시달렸다. 구속은 잘 나왔지만, 밸런스가 흔들렸다. 심기일전한 류현진은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시즌 6승에 다시 도전한다.

류현진은 올 시즌 5승 3패 평균자책점 3.23을 기록 중인데, 2점대 평균

자책점 재진입도 노린다. 환경은 녹록지 않다. 화이트삭스는 올 시즌 좌완을 상대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인다.

6일까지 좌완 투수를 상대로 팀 타율 0.278을 기록 중이다. MLB 30개 구단 중 두 번째로 높다.

좌완 상대 팀 OPS(출루율+장타율)는 무려 0.831이다. 30개 구단 중 독보적인 1위다.

화이트삭스엔 아메리칸리그 좌완 상대 타율 1·2위 선수가 몰려있다.

류현진이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공을 던지는 건 빅리그 데뷔 이후 처음이다.

상대 팀 선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베테랑 좌완 투수 맬리스 카이클이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토론토의 주전 포수 대니 잰슨이 부상으로 이탈한 건 류현진에게 악재다. 잰슨은 7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홈 경기에서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오른쪽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한 뒤 교체됐다.

류현진은 토론토 이적 후 잰슨과 호흡을 맞춰왔다.

여러모로 등판 환경은 좋지 않다. 류현진은 좌완 킬러들이 득실득실한 화이트삭스전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연합뉴스

올림픽 여자 골프 동남아시아 경계령

LPGA 태국·필리핀 선수 우승

‘세계 최강’ 한국 여자 골프의 올림픽 2연패 길목에 동남아시아 경계령이 떨어졌다.

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동남아시아 선수들의 기세가 예상처럼 뜨겁다.

7일(한국시간) 열린 US여자오픈 최종일에 유카 사소(필리핀)가 연장전 끝에 우승했다. 사소는 오는 7월 도쿄 올림픽에 필리핀 대표로 출전할 게 확실하다.

사소는 빠르고 강한 스윙과 탄도 높은 아이언샷에 언제나 홀을 지나가는 과감한 퍼팅 등 탄탄한 기본기와 20세 나이에도 두드러진 배짱이 강점이다.

LPGA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우승한 패티 타와타나깃(미국)도 이번이 없는 한 도쿄 올림픽에 태국 국기를 달고 참가한다.

사소와 타와타나깃은 20대 초반 ‘젊은 피’라는 점도 눈에 띈다.

사소는 2001년생, 타와타나깃은 1999년생이다. 도쿄 올림픽뿐 아니라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도 한국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부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